

'92 춤의 해

부산직할시립무용단

PUSAN MUNICIPAL DANCE TROUPE

NEW YEAR  
DANCE  
FESTIVAL

# 신추무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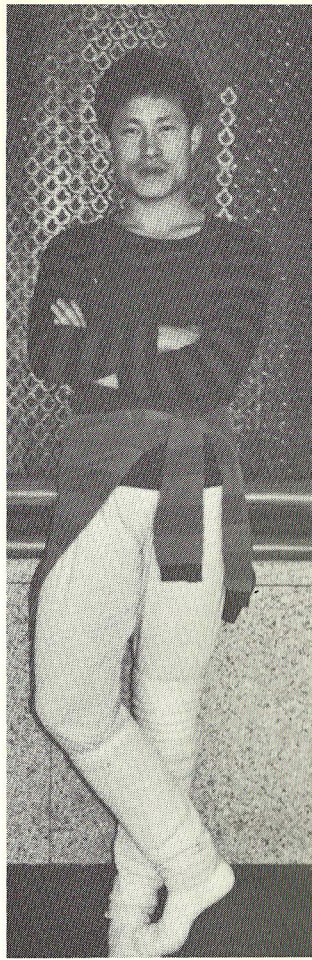


'92. 3. 26 (목) 오후 7:30  
 '92. 3. 27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PUSAN CULTURAL CENTER SMALL HALL

3월 26일



안무 : 홍기태 (수석)



출연자/홍기태. 이윤혜  
박미령. 김미나  
스텝:오숙례. 이현숙  
서현미  
소요시간: 20분

## 사태 (死胎)

태어남과 죽음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향한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죽음이란?

3월 26일

출 연: 최 찬 열·김 향 숙·이 성 원

임 은 아·박 선 영

스 탭: 황 선 희·전 유 경·이 예 주

음 악: 박 콜 린

무대·소품: 이 상 현

소요시간: 20 분



안 무: 최 찬 열(차석)

## 겨울강, 겨울저녁

깜깜하다. 어둡다.

세상이 그리고 현실의 모습이

대안없음. 전망없음. 의미없음.

혼란의 다른 이름들은 춤을 춤.

보수회귀, 다양성..... 단일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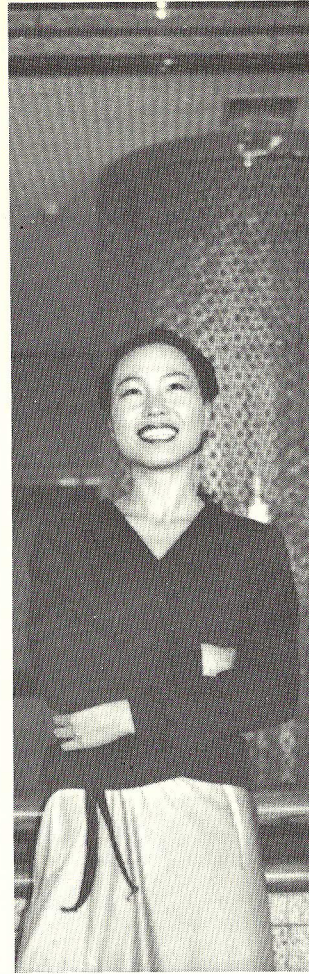
먼저 속을 보고싶다.

그리고 현실을.



3월 26일

안 무  
서순덕  
(차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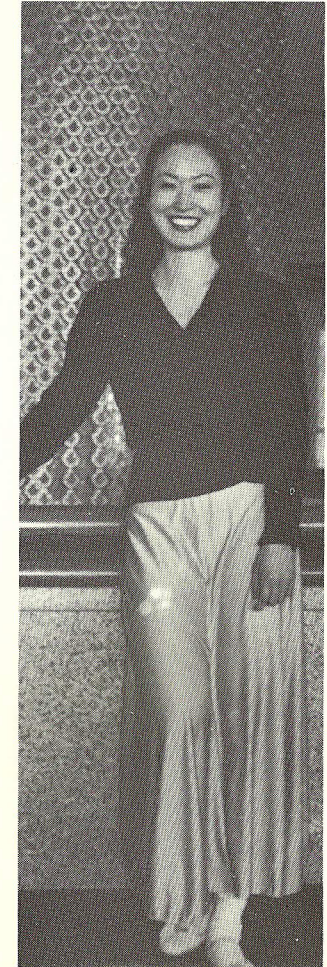


출 연 : 서순덕 · 강휘지 · 서정숙 · 문선애

스 텡 : 김 영 희 · 강 영 미

송 현 주

소요시간 : 20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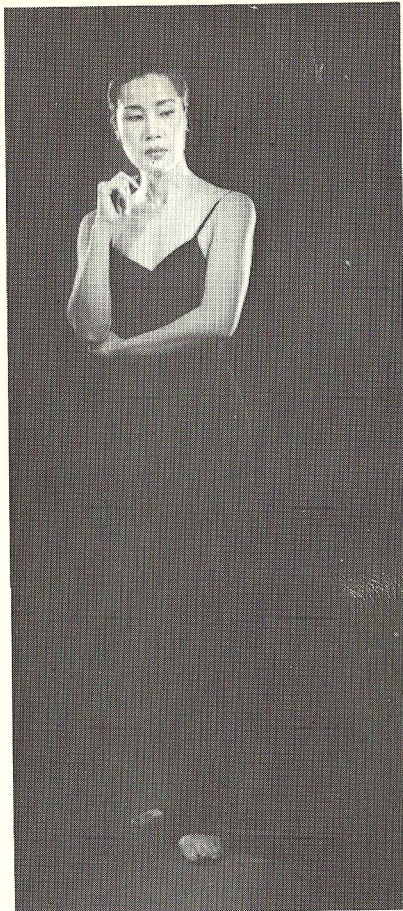


# 춘 무 (春 舞)

이른아침 창살을 타고 흐르는  
따사로운 봄별의 화사로움으로  
산들산들 봄바람에 자라나는  
연두 빛 노오란 잔디의 상큼함으로

뚝길따라 죽 줄지어선 들판의  
푸른 보리싹들의 힘찬 역동으로  
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빛따라 바람따라 초록으로  
순간마다 더 가까이 오는 봄!



# 비어있음 = 침묵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말이 없다는 것은 듣는이에  
따라서 긍정으로 느낄 수 있고,  
부정으로도 느껴질 수 있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 무엇,  
혹은 동시에 긍정일수도,  
부정일수도 있다.

침묵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비어 있는 상태이며 없음의  
의미이다.

안 무: 이 송 희(수석)

출연자: 이송희, 이현미, 장해정  
스텝: 최길자, 장은미  
강미향

소요시간: 30 분

왜 침묵과 무(無)의  
의미에 집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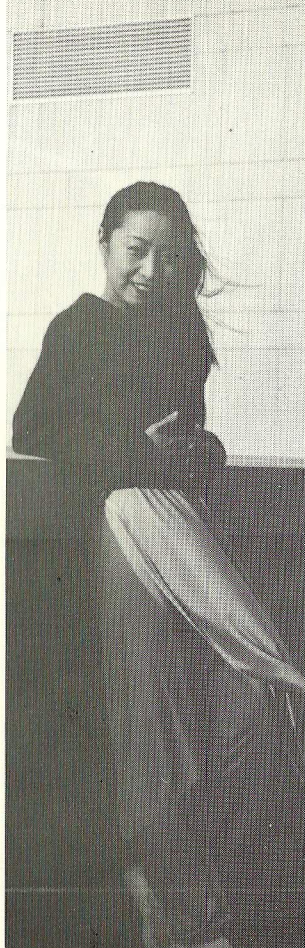
I 장: 눈, 귀, 입  
세가지의 유혹

II 장: 생존의 삶

III 장: 또 다른 모습



3월 27일



## 여기가 어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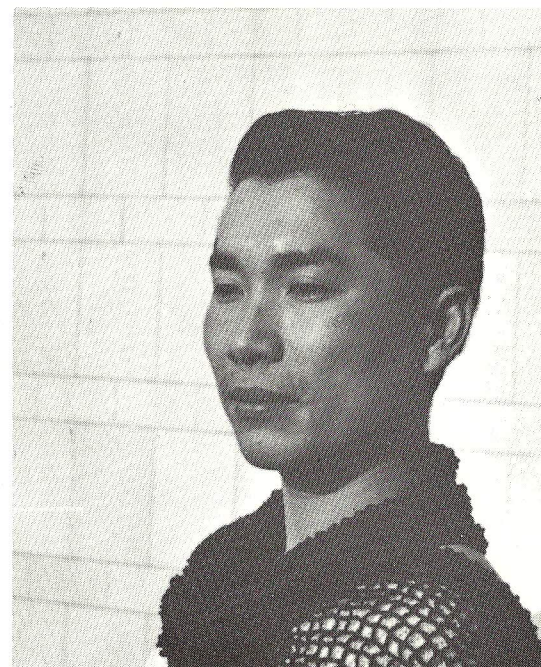
지구는 둥글다는데  
내가 사는 지구는 둥글지가 않다.

뛰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낭떠러지 절벽

지구는 돈다는데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둥글둥글 돌아간다는데  
내가 살아가는 지구는 돌아가질 않아

뛰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마냥 그자리  
그래도 사는 것은.....



안 무: 장 래 훈(차석)

출 연: 장래훈. 김경옥. 정진희

스 텨: 김 용 목. 김 동 숙

허 복 희

소요시간: 30 분